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누구에게 감사하나 성경: 시편 136편 20-26절

Tag: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0-26)

누구에게 감사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는 감사의 인사를 받는 자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다. 왜냐하면 감사할만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니 그렇다.

감사 이전에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감사를 가르치는 것 또한 귀한 영적인 농사.

벼농사만 해도 그렇다. 북한 사람이 한국의 벼농사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놀라니, 새삼스럽게 감사가 다가온다. 북한은 아직도 과거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농사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의 강도가 크고,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4.5%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선진국은 2~1% 미만, 세계평균 46.5%, 낙후지역은 90%가까이) 그나마 50대 이상이 75% 넘는다. (중국은 현재 약 40%, 70년 전에는 90%, 문제는 농민공)

농업인구는 줄었어도, 생산량은 크게 향상. 기술과 인프라, 제도의 발달로. 앞으로 더 발전할 것. 점점 창조 질서의 회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품종계량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식물의 원형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AI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 토종닭 농가는 염려 없음.) 토종 채소밭의 냉장고화가 진행될 것. 농업유통문제 사라짐. 밥은 햇반.

- 하나님 창조질서의 회복이 우리의 과제.
- 그 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선.
-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
- 오늘 시편 136편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관한 신앙고백이며, 감사의 표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기쁨이다. 감사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감사는 자칫 인사치레일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오늘 성경말씀은 다윗의 시로, 감사의 제목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 다윗이 깨달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자.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신앙고백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함을 증명받고 싶어하고, 나를 선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감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한다.

-다윗의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외롭고 따돌림 받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골리앗과의 대결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울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처절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끝내는 내어 쫓김을 받고, 10여년을 광야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녔다.

-그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임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윗은 사울왕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매우 악하게 대우하였지만, 자신은 결코 사울왕에게 악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다윗 자신의 율법주의일 뿐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으셨다.

-다윗 주변에도 스스로 선함을 과시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께 비하면 보잘 것 없다.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자이다.

-항상 스스로 선함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자들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못하다.(현 정부를 비꼬아 하는 말은 아니다. 모든 정부가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보다 의로웠지만, 무능했고, 현 정부는 악하면서도 무능함. 현재 코로나 때문에 회개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회개하는 정부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리라!)

-스스로 선하나, 무능한 자는 선행을 실천하지도 못한다.

-오직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는 자들의 계략이 무산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의 신실한 기도를 못들은 척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다윗의 감사 제목이다.

-두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했다.

-다윗은 밋세바 사건으로 충신 우리야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

-죄 앞에서 나약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불행을 모두 겪었다. 생전에 가장 비참한 경험을 아들들을 통해서 경험하였다.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였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괴로워했다. 조금 잘못 생각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였다. 다윗의 감사 고백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된 처절한 감사이기도 하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 바산왕 옥은 당시의 악의 축. 악을 제거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악을 몰아 가신다. 한꺼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아멘.

감사가 없는 인생은 삭막하다

감사는 만족의 완성

감사는 불만족을 거룩하게 한다.

감사는 우리의 감동,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 없다면 서운한 것

<찬양예배>

제목 : 어떻게 감사할까

성경: 골로새서 3장 15-17절

Tag: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3:15-17)

1. 평강을 유지하는 감사 (15)

- 유지는 방치의 반대말
 -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하고, 살피며, 보살피고(생명체), 쓰다듬어야 한다.(스킨십)
 - 그리스도의 평강; 기독교적 가치관의 유지
 - 평강이란 평범한 일상, 무탈한 일상, 걱정이 없는 일상을 뜻한다.
 - 평강이란 다급한 일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 건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병으로 고생하나, 조만간 치유받고 좋아질만한 질병중에 있고,
 - 여러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들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이 평강이다.
- 주 안에서의 평강. 말씀 안에서의 평강.

-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평안한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
-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곳에, 돈이 주인되고, 어른이 주인되고, 무당이 주인되고, 세속이 주인되고, 조상이 주인된다.

-부부가 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하라.

-불안한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라. ->감사로 불안을 소멸하라.

2. 찬양속에 감사를 담으라(16)

-찬양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담겨져 있다.

-찬양은 영혼을 안정시킨다.

-요가나 목상에 사용하는 평안한 선율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치유와 복음이 없다면 맹물과 같다. 살아있는 생수가 필요하다.

-감사의 찬양이 곧, 물을 생수되게 한다.

-찬양은 마치 그물과 같다. 심연에서 물고기를 끌어 올린다.

3.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17)

-예수의 이름이 곧 면허증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다.

-그것에 감사하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 감사.